

3) 영혼이 간절하다는 말은 삶의 근본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어도 이해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 신학자와 목사와 글 쓰는 이로 살았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설교했고, 상당한 기간 신학대학에서 강의했고, 상당한 분량의 책을 쓰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에서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칠십 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영혼이 간절합니다. 삶의 가장 핵심 영역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인간적 업적을 성취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거나 신앙적인 교양을 쌓는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를 초대형교회로 키운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에 집착할수록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4) 여러분은 영혼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실제로 느껴보셨는지요. 다른 말로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영혼 구원입니다. 바울이 로마 4장에서 역설한 의로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나 고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이유는 모두 한결같이 바로 영혼의 자유를 향한 갈망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의 자유와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밑으로 푹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느낍니다. 한밤중 폭풍우에 흔들리는 항해 중에도 멀리서 깜빡이는 등대 불빛을 보듯이요. 우리에게 숙제는 우리의 영혼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예민해지는 것, 즉 등대 불빛이 더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가리킵니다.

5) 여기서 떠남은 돈과 가족과 친구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다는 게 아니라, 즉 출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돈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지는 것이 곧 떠남의 영성입니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먼저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야만 가능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간 수준만큼 일상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남녀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밀당' 차원만 아는 남자나 여자는 상대방과 밀당 관계만 맺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지배하려고만 하겠지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온통 그런 밀당 관계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불행한 거지요.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3년 6월18일

성령강림 후 3주

세계 교회력 「가」해 30주



6월15일 정 목사 마당에서 찍은 살구다. 5~6년 된 살구나무에 호두알 크기의 살구가 열 개쯤 달렸다. 까마득히 멀리서 달려온 햇빛이 살구의 몸집을 키우는 중이다.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공부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우리는 모두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유한하기에 한편으로는 허무하고 다른 한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하나님의 소명이자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사람처럼 지금 여기서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찬송 18장 (성도들이 찬양하자)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배타적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과 만물을 완성하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모든 일상을 멈추고 창조와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창조주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으며, 영광의 존재가 아니라면 찬양을 드릴 수 없고, 권능을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기도를 바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운명에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며 권리이자 기쁨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 (영광송) ... 다 함께



[알리는 말씀]

* 예배 후 데칼로그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지난주일(6월 4일) 현금: 710,000원(주일현금 260,000원, 통장현금 45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6, 7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6월 25일	김동호목사	김용성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이유선 /아트컬리지 5
7월 2일	정용섭목사	윤혜정집사 최선아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박정덕 /시청각실

지난주일(6월11일) 설교 발췌

제목: “아브라함의 소명 경험” (창 12:1~9)

1) 문명화된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일종의 종교 현상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종교라고 하지 않으나 삶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종교적입니다. 일례로 대형마트나 초현대식 백화점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건물은 대형 교회당과 비슷한 기능을 감당합니다. 고객은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싹껏 구경하고 손에 넣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무료하거나 허무한 삶에서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일 년에 오천만 원 이상을 구매하는 부자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여는 백화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행위가 일종의 구원입니다.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는다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은 ‘나는 자연인이다’는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2) 아브라함의 소명과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에서도 가장 가까운 소명 이야기는 모세의 소명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초반에 나옵니다. 애굽 왕자로 살던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들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망명자가 됩니다. 나이 마흔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토속 종교 제사장인 이드로의 데릴사위가 되어 양을 키우면서 사십 년을 살았습니다. 사십 년 동안 모세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어느 날 그는 미디안 토속 종교의 성지인 호렙산 근처로 양을 몰고 갔다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덤불 현상을 보고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선승들이 대나무 바람 소리를 듣거나 기왓장이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를 듣고 큰 깨우침을 얻는 거와 비슷합니다. 출구 없는 방에 갇힌 듯이 답답했던 영혼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경험입니다.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절 ... 다 함께

*위탁의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후' 셋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부활과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허무한 삶을 버텨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갈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세상의 요구와 기준에 길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둔감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인 세례를 베푸시어,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민감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개인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선포

목사: 예수님은 중풍 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막 2:5).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과 지난 2천 년 교회의 예배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국악찬송」 95장 (보혜사 성령) ... 다 함께

황대익

변규백

자진탈춤 장단으로



1. 성령의역사가비둘기같이
2. 성령의역사가바람과같이
3. 성령의역사가불의혀같이



이시간우리에게역사하시네
이시간우리에게역사하시네
이시간우리에게역사하시네



우리의기도를들어주시고
우리의찬송을받아주시고
우리의예배를받아주시고



평화의강가로인도하시네
승리의언덕에세워주시네
축복의땅으로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계 교회가 정한 '성서일과'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나눔으로써 우리는 세계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창세기 18:1~15 ... 고중흥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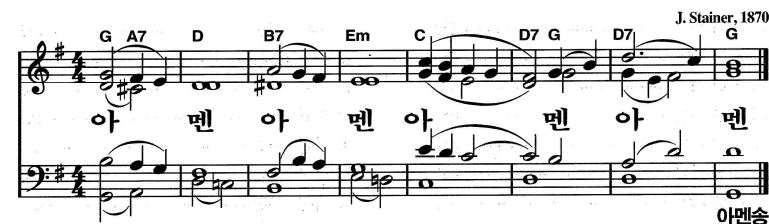
성시교독 시편 116:1~2, 12~19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나의호소 나의간구 우리주님 들으시네 나는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네
-우리주님 귀를열어 나의간구 들으시니 주가주신 한평생을 기도하며 살으리라
주님께서 베풀어준 많고많은 은혜들을 무엇으로 제가모두 갚을수가 있으리요
-구원의잔 높이들고 주님이름 부릅니다 우리주께 맹세한것 틀림없이 지키리라
하나님께 충성다한 성도들이 죽는다면 주님께서 그죽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네
-이내몸은 진심으로 주님에게 속했다네 주님께서 나의결박 풀으시어 자유주네
나는힘써 주님에게 감사찬양 드리면서 온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름 부르리라
-내가주께 맹세한것 모든백성 보는데서 모두이행 할것이라 틀림없이 행하리라
-예루살렘 주님도성 한복판에 머물면서 주님성전 뜰안에서 틀림없이 지키리라

둘째말씀 로마서 5:1~8 ... 고중흥 집사

*셋째말씀 마태복음 9:35~10:8 ... 고중흥 집사

*응답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설교 성령과 하나님 사랑 ... 박재진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찬송 186장 (영화로신 주 성령) 1, 3, 4절 ... 다 함께